

데스크 시각



홍행기 경제부장

다시 듣는 홀리데이(Holiday)

피 했던 인질극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일당 중 강영일(당시 21세)이 경찰과 협상하러 집 밖으로 나가있을 때 또 다른 일당인 한의철(당시 20세)과 안광술(22세)은 지강현이 지니고 있던 총으로 자살했다. 이 총은 호송 교도관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지막을 예감한 지강현은 경찰에게 그룹 비지스(The BeeGees)의 노래 '홀리데이'(Holiday) 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가져다준 테이프를 크게 틀어둔 채 장문을 깨뜨린 그는 깨어진 유리조각을 주위 자살의 목을 그었다.

인질을 해지려는 걸로 착각한 경찰 특공대가 쓴 총탄이 지강현의 꺼져가는 목숨을 거뒀다. 살아남은 강영일이 생포되고,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모두 무사히 구출되면서 피로 열폭진 인질극은 막을 내렸다.

26년 전 사건을 이제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빛어지는 상대적 불평등'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당시 지강현 일당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20년에 이르는 '과중하고 불평등한' 형량이었다.

범죄자의 시각에서 편의대로 생각한 것이지만, 그때는 이른바 '5공 비리'로 불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부정부패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지강현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사는 것이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려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다. 범죄자의 치졸한 변명이자 궤변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

소통의 노력 필요

취벌 때' 우리 사법체계가 이 같은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얼마 전 세간에서는 유명 로펌 소속 전 관(前首) 변호사가 받은 성금보수금이 화제가 됐다. 재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계약조건은 착수금 3000만 원, 그리고 성공보수는 집값의 불기소 처분이나 벌원의 무죄 선고 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이었다.

변호를 의뢰한 당사자는 1~3실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법정에서 섰던 공동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이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후일담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거금을 들여 무죄를 산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의 시선이다. 혼자만 무죄를 받았을 뿐, 공동피고인들은 유죄라는 점도 이 같은 시각에 일부나마 타당성을 부여한다. 변호사가 노력을 했고, 법원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을 터이지만 변호에 거금을 요구하고, 또 거기까지 지급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우리 이웃에는 서민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무료 변론에 앞장서는 변호사도 무수히 존재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다한 성공보수가 사회적 통합을 해치고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정치가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지금, 사법체계야말로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2, 제3의 지강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redplane@kwangju.co.kr

社說

광주 도심 쓰레기 몸살 시민의식 어디 갔나

광주의 심장인 충장로·금남로 일대가 각종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말이면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엔 여기저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곳이 많다. 중국의 오푸커(廚務)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광주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현재 구가 지정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는 83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YMCA 앞을 비롯한 충장로 일대와 전남여고 후문 사거리, 옛 신동아극장 골목 등은 불법 쓰레기 배출량 1~3위를 차지하는 취약지대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 YMCA 앞 인도의 경우 하루 평균 4000ℓ의 쓰레기가 불법 배출되고 있다. 이는 동구 전체 불법 배출량의 5분의 1이 넘는다. 이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만 치위도 급세 쌓이는 탓에 티도 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

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커피 열풍'을 타고 소비가 급증한 테이크아웃 커피 종이컵과 캔 등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량이 늘고 있다. 동구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40차례 야간 단속을 실시했고 적발도 23차례나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이 때문에 도심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없었던 길거리 휴지통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를 되래 조정할 수 있는 데다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무작정 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올해 문화전당이 완공되는 광주에서는 내년에도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8년 세계수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제도시로 성격을 도약하게 된다. 시민들 저마다 타인을 배려하고 광주 정신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무등산 오토캠핑장 설치 신중 기해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에 오토캠핑장(자동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원관리공단은 건전한 야영문화와 자연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토캠핑장 조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무등산에 오토캠핑장 2곳 등 휴양·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캠핑장 부지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806번지, 동적골 탐방길 꽃동산 부근이라고 한다.

공단은 오토캠핑장 설치 근거로 국내 21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설악산·치악산 국립공원 등 14개 국립공원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국립공원들도 조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별 문

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탐방객들은 "광주시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증심사지구 음식점들을 이주시킨 마당에 오토캠핑장이 웬 말이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등산로 훼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와 탐방객들은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무등산에 오토캠핑장 2곳 등 휴양·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캠핑장 부지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806번지, 동적골 탐방길 꽃동산 부근이라고 한다.

공단은 오토캠핑장 설치 근거로 국내 21개 국립공원 중 지리산·설악산·치악산 국립공원 등 14개 국립공원이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국립공원들도 조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별 문

은편칼럼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행정학박사

조선왕조실록과 기록문화

2월8일 기록에 의하면, 왕이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는 않았다.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사관은 그 말까지도 기록하였다.

보존에 있어서도 그 노력은 대단했다. 처음 편찬할 때부터 재해와 전란 등에 대비하여 4부를 만들어 서울, 충주, 성주, 전주에 사고를 짓고 분산 보관 했다. 임진왜란으로 전주를 제외한 3곳의 사고가 소실되자 다시 4부를 더 만들어 5부를 오대산과 태백산, 묘향산(후에 적상산으로 이관), 정족산, 춘추관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또한 실록을 원형대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한 번씩 포쇄(햇볕에 말리는 작업)를 하여 습기와 해충을 예방하였으며, 이때에도 반드시 왕명을 받은 사관이 사고의 문을 열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 실록의 관리가 매우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록에는 항상 공정성과 객관성, 진실성이 요구된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더욱 대단하다.

사관들은 기록을 함에 있어 진실성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편찬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조선중기로 내려오면서 당쟁이 격화되자 편찬을 맡은 관리들도 사관이라 정파에 따라 편찬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조선실록의 경우 광해군 때 북인들의 주도로 편찬되다보니 서인의 영수였던 율곡 이이의 죽음에 대하여 '이조판서 이이 졸'이라고 단 7자로 정리할 만큼 반대편에 인색했다. 나중에 서인들이 집권 후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면서 율곡 이이에 대한 기록이 916자로 늘어나는 등 서인의 시각에서 수정 편찬된다.

그러한 예는 남인들이 집권한 시기에 편찬된 현종실록도 마찬가지다. 숙종 때 서인들이 집권 후 '현종개수실록'을 편찬하여 보완하였고, 영조 때 소론이 편찬한 경종실록 역시 후에 노론이 집권하면서 '경종수정실록'으로 수정 편찬되었다. 또한 숙종실록의 경우에도 소론과 노론의 당쟁과정에서 요즘의 정오표라 할 수 있는 '보결정오'를 편찬 보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원본을 없애지 않고

함께 보존하는 아량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문득 요즘은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기록문화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물론 영구보존문서를 비롯한 주요 문서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지만 정작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쉬운 것들을 사소한 것일지라도 시대상이 배인 시정 일기와 같은 자료들일 것이다.

이제 민선 6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일기(施政日記)를 써 보면 어떨까? 가령 단체장의 하루 일정과 각 부서에서 제출되는 보고청 등 의 내용을 기록하고, 당일의 회의내용이나 지시 사항 등을 결하여 일기를 쓴다면 매우 흥미롭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정일기가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된다면 먼 훗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큰 가치를 지니게 되지 않을까?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을 '은편칼럼 회원들의 갈림길'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 고

올 여름휴가는 우리 농촌에서

심정을 아는 듯 청주를 건네주고 있는 '무더운 여름날 산 속의 정겨운 피서 장면'을 담은 고서 한 폭을 보고 싶다면 올 여름휴가는 소박한 선조들의 피서법을 배워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휴가' 나 '피서'의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는 것 같다. 정신없이 달려온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시간적·공간적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 편히 푹 쉬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휴가를 매년 많은 인파 속에서 시달리며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켜 온 건 아닌지.

실제로 주변 사람에게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집안일로 시달리는 아내를 위한 의무감으로 유명피서지만을 찾다 보니 해마다 교통체증 및 바가지요금 등에 스트레스만 쌓이는 휴가를 보내고 녹초가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특히나 올해는 내외 역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경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름휴가계획에 관한 조사결과와 경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여름휴가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8%나 감소했다고 한다. 감소 원인은 비싼 휴가비용과 교통체증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한 내수 경제 및 관광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 재계,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이나 유명 관광지지를 찾기보다는 '농촌으로의 힐링 여행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림 농식품부장관, 허창수 전령련회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등 100여명이 참여해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홍보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여름휴가지 30선' 마을을 선정하고 농촌으로 여름휴가를 가고자 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웹툰 포털사이트(www.welchon.com)에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하기도

했다.

농협도 오래 전부터 팜스테이(Farm stay)마을을 선정·육성해 왔다. 팜스테이는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생활·문화체험과 마을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협이 육성하고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 여행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www.farmstay.co.kr)에 접속하면 전국에 250여개 이상의 팜스테이 마을이 소개되어 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휴가지 선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소박한 정이 있는 시골 자연속에서 참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농촌을 찾아 알차고 보람된 휴가를 보내고 침체한 국내관광 활성화 및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휴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조의 지혜를 본받아 가까운 농촌마을로 향해 주시면 좋겠다. 아울러 떠나기 전 평소 읽고 싶었지만 바쁜 일상에 읽지 못했던 좋은 책 한 권 꼭 챙겨가기를 권하고 싶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무등산 오토캠핑장' (Mudeungsan Auto-camping site) featuring '까마귀' (Magpie) as a mascot. The ad includes a logo, introductory text about the site's location and facil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publication details such as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